

육성우 전문목장의 필요성과 육성대책



이 병 오

강원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1. 젓소 육성우 전문목장의 필요성

젓소 육성목장이란 소규모 낙농가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초지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동조합에서 국공유림을 초지로 개발한 뒤, 착유우 후보축이 될 젓소 암송아지를 구매 또는 위탁받아 초지육성 시킨 후 초임만삭우로 판매하거나 또는 낙농가로 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되돌려주는 목장을 말한다.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육성목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낙농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낙농의 큰 특징은 낙농가나 젓소사육두수의 약 절반이 수도권주변에 위치한 도시근교형 낙농이라는 점이다. 도시근교형 낙농의 취약점은 지가상승, 축산공해, 노동력 부족 등으로 규모확대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큰 제약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개방화시대를 맞은 한국낙농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수도권 주변의 근교낙농가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선의 방책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으

로서 만약 초지기반이 양호한 산촌 지역에 육성목장을 건설하여 도시근교 낙농가의 육성우를 사육한다면, 즉 현재 한 낙농경영 내부에 착유와 육성과정의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착유전업형 낙농과 육성전문 과정으로 분리하게 된다면, 도시근교 낙농은 규모확대와 시설현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일손부족으로 육성우 사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육성우는 곧 미래의 착유우이기 때문에 육성우의 사육과정은 낙농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볼 때 착유우는 육성단계에서 양질의 조사료 특히 풀사료를 많이 섭취하고 산지방목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골격이 튼튼한 고능력우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육성목장에서 균일한 육성우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훌륭한 착유우로 성장시켜 낙농가에게 되돌려준다면 우리나라 낙농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산촌지역에 육성목장이 입지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현재 낙농의 발전이 낙후된 산촌지역이 새로운 낙농의 전진기지로 부상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 이바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촌은 현재 노동력 부족과 자본부족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육성목장이 많이 입지하게 되면 주변 농가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착유설비나 착유 과정에 소요되는 노동강도(勞動強度)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낙농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부실초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육성우목장이 많이 건설되면 자연히 육성우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축산의 진흥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육성목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낙농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낙농의 큰 특징은 낙농가나 젖소사육두수의 약 절반이 수도권주변에 위치한 도시근교형 낙농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근교의 착유전업형 낙농과 산촌지역의 육성목장이 잘 조화되면 한국낙농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근교의 착유전업형 낙농과 산촌지역의 육성목장이 잘 조화되면 한국 낙농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관광형 육성목장

육성목장은 대규모 초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우생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토양침식 방지, 수질정화 등 환경보전기능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서 인간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보건, 휴양 기능도 갖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육성목장에 인간교류기능을 가미시켜 관광형 육성목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대개 육성목장은 낙농의 생산성 향상을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협동조합이 공공자금을 투자해 건설하는데 이용하는 낙농가수가 한정되어 있다. 이때 자칫하면 육성목장과 관계없는 주민이

나 조합원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이용자가 몇백명밖에 안 되는 육성목장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의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육성목장의 일부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주민들이 육성목장의 또 다른 기능인 휴양기능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서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둘째, 육성목장의 위탁수수료만으로는 적자를 내기 쉽다. 일본의 육성목장 대부분이 적자경영이어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보조를 받고 있음을 본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편의시설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넓고 푸른 초지와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목가적인 육성목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육성우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린이들이 송아지와 놀 수 있도록 한다든지, 소규모 유제품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치즈, 버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게 하고, 초원

에서 가족단위로 바베큐를 즐기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숙박시설, 연수시설, 자연탐험의 장, 축산가공품 판매시설, 스키장 등도 겸비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광수입을 독립채산제로 도입하면 육성우 사육부문의 적자부분을 메울 수 있으며 육성목장의 홀로서기도 가능하다.

3. 육성목장의 운영체계

가. 적지선정

육성목장은 초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은 일정면적 이상의 초지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육성목장의 공익적 기능과 시설투자 특히 토지구입비용의 절감을 고려할 때 국공유지가 적합하다. 토지구입비용의 절감 또는 부실초지를 이용할 경우의 초지개발 비용 절감은 결국 육성우 사육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위탁 수수료가 경감되므로 낙농가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육성목장의 입지조건은 일반 목장과 마찬가지로 도로, 진입로 및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 좋으며 전기시설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또 가능하면 인근에 자연부락이 있고 옥수수 재배농가가 많은 곳이 좋다. 이는 임시고용 노동력의 확보나 겨울철용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계약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공유지는 개발이용이 가능하고 장기임대(50년 이상)가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

나. 운영관리 주체

육성목장의 운영주체는 육성목장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생산자단체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육성목장의 운영선례가 거의 없고 경영기술의 축적이거나 관련 전문가도 적기 때문이다. 육성목장의 역할이 낙농가의 육성우 사육부분을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관리 해주고 지역축산을 진흥시키는데 있다고 할 때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생산자단체가 운영주체가 될 때 그 운영방식에는 생산자단체 직영, 전문경영회사에 위탁경영, 자회사설립, 제3섹터 방식(공동투자회사설립)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생산자 단체에서 직영한다고 해도 새로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육성목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목장수가 많아지게 되면 직영하는 것보다 간접참여 방식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직 육성우사육을 전담하는 영리단체는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전문 경영회사가 생겨난다면 위탁경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전액출자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부 영리사업도 피하 수가 있다. 영리사업이란 위탁육성외에 자가육성우를 확보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직영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수지 악화나 마케팅부문의 취약을 보완하면서,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익을 추구하며 경영의 원활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최근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제3섹터 방

식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육성목장은 운영도 최근 제3섹터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하여 지역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체의 운영을 전담시키는 사업체로 정의된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기간에 대규모의 개발을 하는 데는 지출예산액의 틀이나 단년도 예산제도 때문에 제약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목적달성을 바라지만 채산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 치우친 단편적인 개발이 되기 쉽다. 이러한 제각기의 개발주체가 갖는 장단점을 상호보완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투자효과를 크게하기 위해 민관공동의 제3섹터 방식이 구상되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의사결정이나 자금조달에 기동성이 부족하고 조직체가 갖추어야 할 자기관리유인(誘因)도 부족하며, 민간부분에 의해 운영되면 수익성 중시에 치우쳐 채산성이 나쁜 부분을 삭감시켜 공공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양자의 조화가 필요한 공영개발사업에 제3섹터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다. 육성우 입식 및 관리체계

육성우의 입식은 3~6개월령의 분유떼기 송아지를 입식하여 20~21개월령의 초임만삭우를 출하(또

표1 육성단계별 사양지침

월 령	기 간	단 계	사 양 지 침	비 고
3~ 6개월령	4 개월	방목 순치단계	어린(층)송아지 사양	종부기
7~11개월령	5 개월	방목 1단계	큰송아지 사양	
12~15개월령	4 개월	사 사	큰송아지 사양	
16~19개월령	4 개월	방목2단계	임신우 사양	
20~21개월령	2 개월	농가적용 단계	임신우 사양	
계	19 개월	-	-	

는 반환)하여 육성기간은 약 19개월이 된다. 육성단계별 사양지침은 <표1>과 같다.

입식기간은 목초의 생산 수확기를 고려하여 춘계, 추계로 나누어 구분입식한다. 춘계입식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실시하며 추계입식은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실시한다. 초기에는 소수의 육성우를 입식시켜 시설 및 사양체계를 점검한 뒤 점진적으로 두수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식된 육성우는 사진촬영, 영구 개체표시, 등록번호 부여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개체별 육성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또, 방역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실시로 폐사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량후보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목초 및 조사료 위주의 사양으로 채식성과 강건성이 우수하도록 엄격한 사양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 초임우를 방출할 때는 유우개량기관에 의한 능력검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위탁우의 육성중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천적 불임우(선천적으로 번식기관이 기형이거나 또는



3회 이상 수정시켜도 뚜렷한 원인이 없이 수태되지 않는 육성우)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입식농가에 반환한다. 그러나 질병 또는 사고로 폐사하거나 착유우로서 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대체육성우로 보상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폐사율을 고려하여 적정수(예를 들어 시기별 입식두수×폐사율 5%)의 대체육성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육성우의 입식시 또는 초임만삭우 반환시 수송은 특장차량을 갖춘 전문수송회사에게 위탁하여 소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입식 완료후에는 위탁자에게 위탁사육계약서와 입식증명서를 교부한다.

육성비용의 부담은 매월 정해진 위탁료를 온라인 송금하도록 하며 조합원은 유대에서 공제한다. 또, 위탁료 수준은 협의기구(조합관계자, 위탁자, 정부관계자, 학계의 대표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육성원가와 적정이윤을 고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산정하며 산정내용을 공개한다.

라. 투자분석

육성목장의 신규건설시 기반투자 소요예산은 토지를 구입하여 초지조성을 하느냐 또는 국유지 부설 초지를 인수받아(이때도 전관리자에게 상당액수의 이전비를 지불해야 함) 초지개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위탁육성우 외에 자가육성우를 함께 사육할 때는 자가

육성우 구입자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반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우사, 농기구, 창고,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비도 포함된다.

이와같은 초기 투자비용의 자기 자본이자, 차입자본이자, 감가상각비에 초지관리비(및 초지임대료), 사료비, 인건비, 대체육성우 구입비, 기타 관리비 등을 더하여 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연간 소요 육성경비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육성경비를 19개월로 환산한 뒤 그 총액을 두수로 나누면 두당 육성원가가 계산되며, 두당 육성원가를 19개월로 나누면 1두당 1개월에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알 수 있다. 월간 두당 육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위탁수수료를 결정하면 된다. 참고로 최근 서울우유에서 300두 규모로 시산한 월간 두당 육성원가는 7만원 수준이었다.

육성목장의 수지계산은 위탁수수료 수준과 자가육성우 비율에 달려있다. 보편적으로 소값이 좋을 때는 자가육성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크다. 위탁수수료 수준은 물론 송아지를 맡기는 낙농가의 수요도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 또 자가육성우의 비율은 육성목장의 수용능력, 육성우위탁의 경합정도, 조합원의 양해를 잘 조화시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육성목장의 수지개선면에서 또는 자체 사육한 육성우를 인근 농가에 분양하여 산촌지역을 낙농단지화 한다는 측면에서 자가육성우를 전체 사육두수의 20% 정도 사육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한우 육성목장

2001년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한우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고급육 생산기술의 개발과 냉장육 유통시스템 확립으로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할 정책이 송아지 가격안정과 번식기반 확충이다. 정부에서는 송아지 가격안정제와 한우개량단지의 번식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책은 한우 육성목장과 함께 실시될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한우 육성목장을 주축으로 한 수매·방출방식을 통해 송아지 가격이 적정한 수준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소값 전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번식농가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한우육성목장에서 송아지 현물입식을 실시함으로써, 번식경영의 가장 큰 취약점인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는 한우 육성목장에서 형질이 우수한 암송아지를 번식농가 또는 한우개량단체에 입식시킨 뒤, 장기저리로 계산하여 몇년 후 이자와 함께 시세와 관계없이 송아지를 현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한우 육성목장에서 초지에 방목하여 육성한 비육 기초우(밀소)를 비육농가에 위탁비육(custom feeding)시킨다면 한우비육단지 등 비육농가의 규모확대 및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즉, 비육농가는 위탁된 밀소를 단기 비육시켜 시세대로 판매한 뒤

판매금액을 한우 육성목장에 납입하고 사료비와 비육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로써 밀소 구입에 따른 막대한 자본부담과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규모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시설이용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의 중기(9개월) 및 장기비육(14개월)은 자본회전기간이 길고 사료곡물 다음으로 생산비 상승의 요소가 많은데 육성단계의 역할로 비육기간이 현행보다 3~5개월 단축되면 외화절감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우고기의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우 육성목장에 공동방목장을 설치해 놓고 농번기에 희망농가의 소 또는 송아지를 위탁사육해 주거나 또는 방목지가 없는 인근 번식농가들의 소를 공동방목케 하면 낙농부문의 헬퍼 제도와 같은 서비스를 한우 육성목장에서 대행해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우개량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한우 육성목장 내에 인공수정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번식농가에 우수한 정액을 인공수정시켜 주기도 하고 우량형질의 암송아지를 입식시킨다던가 균일한 비육기초우를 비육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이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 육성기의 조사료 다급은 비육기의 증체효율을 높여주므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낙농가의 부산물인 젖소 수송아지를 육성하여 비육농가에 판매할 수도 있다.